

단국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오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사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기초를 파내어 자기 집을 무너지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은 그가 집이 무너질 것을 선행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그는 집이 실제로 무너지는 경험을 해 보지 않고도 안다고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 사실을 전적으로 선행적으로만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체가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제거되면 그 물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경험에 의해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중략)……

경험은 어떤 것이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밖의 다른 것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첫째로’ 만일 ‘필연성’을 가지는 명제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명제는 선행적 판단이다. 또한 이 명제 자체가 반드시 필연적 명제에서만 도출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선행적이다. ‘둘째로’ 경험은 자기의 판단에 진정한 또는 엄밀한 보편성을 부여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다만 귀납을 통해 그럴듯하고 비교적으로 ‘보편성’을 부여하는 데 불과하다.

경험적 보편성이란 대다수의 경우 타당한 보편성을 모든 경우에 타당한 보편성으로 재량껏 높인 데 불과하다. 예컨대, “모든 물체는 무게를 가진다.”라고 하는 명제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다. 이에 반하여 엄밀한 보편성이 어떤 판단에 본질적으로 속하여 있는 경우 이 보편성은 판단의 특수한 인식 원천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즉 선행적 인식 능력에 의한 것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필연성과 엄밀한 보편성은 선행적 인식의 확실한 특징이며, 이 양자는 서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판단의 우연성보다 판단이 경험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선 용이하며, 판단의 필연성보다 우리가 그 판단에 부여하는 무제약적인 보편성을 보여 주는 것이 알기 쉬운 때가 많다. 필연성과 보편성이라는 두 가지 표징(標徵)은 그 각각이 모두 확실한 것으로서, 따로따로 사용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출처 : 한철우 외, 『고등학교 고전』

[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을 그림 속에서도 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다. 우리는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그 아름다움을 작품 속에 간직해 준 미술가들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미술가들 자신도 우리들의 이런 취향을 퇴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플랑드르의 위대한 화가인 루벤스가 그의 어린 아들을 그렸을 때, 그는 분명히 아들의 귀여운 얼굴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들이 그의 아들을 귀엽게 보아 주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주제에 관해서 이런 편견을 갖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매력이 덜한 주제를 다룬 그림을 거부하게 만든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뒤러도 루벤스가 자기의 포동포동한 아들에게 가졌던 만큼의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그의 어머니를 그렸을 게 틀림없다. 고생에 찌든 늙은 어머니를 진실하게 그린 이 습작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피하고 싶은 충동을 줄 만큼 충격적이다. 그러나 뒤러의 이 그림은 위대한 진실성을 담고 있는 명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느낀 반감을 극복하기만 한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그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된다. 아름다운 것에 관한 문제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에 관한 취향과 기준이 이처럼 다르다는 데 있다.

* 퇴박 :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물리치거나 거절함.

출처 : 정민 외, 『고등학교 고전』

[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것은 아니고, 소련은 이웃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도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공통으로 관찰한 사실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를 ‘과학적 부조리’라고 규정하는 동물학자들에 대해서는 논할 것도 없다. 지금 말한 명제는 마치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위장된 정치 강령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주의자는 이러한 ‘사실’의 몽상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이 몽상 세계는 사실—이것은 이상주의자가 말하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로 구성된 현실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한편 현실주의자는 이러한 이상주의적 명제가 현실이 아니라 소망이고, 직설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간파한다. 그리고 현실주의자는, 소망으로 간주되는 이러한 명제는 사실은 선험적 명제가 아니며, 이상주의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실제 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계속 주장한다.

즉 현실주의자에게 인간의 평등성이라는 명제는 특권계급의 수준으로 자신들을 끌어올리려는 하층계급의 이데올로기이다. 평화의 불가분성이라는 명제는 특히 공격의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들의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중대사라는 기본 원칙을 어떻게든 내세우고 싶은 것이다. 또 주권 국가가 부조리하다는 명제는 강대국의 이데올로기이다. 다른 나라의 주권은 강대국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상주의 이론이 의지하고 있는 숨겨진 기반을 밝히는 것은 진지한 정치학의 필수 전제가 된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는 정치 이론의 선험적 성격을 모두 부정하고, 또 정치 이론이 현실 속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쉽게 결정론에 빠져 버린다. 이 결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론은 미리 준비되고 결정된 목적을 합리화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완전한 무용지물로, 그로써 현상을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이상주의자가 목적을 유일하고 궁극적인 사실로 다루는 데 비해, 현실주의자는 과감하게 목적은 단순히 다른 여러 사실에서 기계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 E. H. 카, 『역사란 무엇인가/이상과 현실』

[문제 2]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하여 [다]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라]~[바]를 모두 이용하여 [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과 그릇된 관념들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인간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용의주도하게 그러한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는 한, 학문을 혁신하려고 해도 곤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중략)……

‘종족의 우상’은 인간성 그 자체에, 인간이라는 종족 그 자체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감각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주장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동굴의 우상’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다. 즉 각 개인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오류와는 달리) 자연의 빛(light of nature)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키는 동굴 같은 것을 제 나름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 상호 간의 교류와 접촉에서 생기는 우상이 있다. 그것은 인간 상호 간의 의사 소통과 모임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시장의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철학의 다양한 학설과 그릇된 증명 방법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생기게 된 우상이 있는데, 나는 이를 ‘극장의 우상’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출처 : 베이컨, 『신기관』

[나] 미끄러운 경사 길 논증은 미끄러운 경사 길에서 일단 첫 발걸음을 떼고 나면, 그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첫 발걸음을 떼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논증이다. 이는 “만일 우리가 A를 허용한다면, 우리는 B와 C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현재 A 자체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이것이 B와 C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B와 C가 좋지 않은 결과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우리가 A를 허용하지 않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출처 :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우리는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사실에 사회적 맥락이 더해진 진실도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을 대표할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선정하고, 탈진실화가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특성이라고 진단했다. 탈진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가짜 뉴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가짜 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인터넷상의 뜬소문까지,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 영역 안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의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비생산적인 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2017년 2월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가짜 뉴스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중략)……

‘21세기형 가짜 뉴스’의 특징은 그 논란의 중심에 국제적인 정보 통신 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가짜 뉴스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매체에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감쪽같이 변장한 가짜 뉴스들은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쉽게 유통·확산된다.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경로가 신문·방송 같은 전통적 매체에서 인터넷

사이트, 누리 소통망(SNS) 등 디지털 매체 쪽으로 옮겨 가면서 벌어진 일이다.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정보 통신 기업들은 ‘디지털 뉴스 중개자’로 부상하는 동시에 가짜 뉴스의 온상지가 됐다.

……(중략)……

누리 소통망의 정보 처리 규칙도 혐오와 차별, 극단적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정보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선별적으로 전달된다. 이때 정보 처리 규칙은 이용자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 위주로 보여 주는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편견과 고정 관념 역시 강화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필터 버블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 업체나 누리 소통망 등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중략)……

개인 맞춤형 정보 처리 규칙은 정치·사회 분야의 뉴스와 만나 필터 버블 현상을 극대화한다. 진위 여부보다 자신의 호불호가 뉴스를 보고 믿는 기준으로 더 강력히 작용하다 보니 잘못된 사실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가짜 뉴스의 소비는 일종의 심리적 보상 행위이기도 하다. 여론의 장에서 자신의 의견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자기와 유사한 의견들만을 받아들임으로써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제거하려는 행위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확증 편향*이 작용하고, 사실을 해석할 때도 편향적 결과를 낳는다. 이는 한쪽으로 쏠린 정치·사회 소식이 전체 여론을 호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편견과 고정 관념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적 차원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확증 편향 :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

출처 : 이상형 외, 『고등학교 독서』

[라] 정치 문화란 한 사회의 다수 구성원이 자신들의 정치 체제에 관하여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감정, 태도를 의미한다. 정치 문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과 정부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민주적 정치 체제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치학자 알몬드(G. Almond)와 버바(S. Verba)는 정치 문화를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으로 분류하였다.

‘향리형 정치 문화’는 전근대적 사회에서 지배적인 유형이다. 이러한 정치 문화에서는 구성원 다수가 정치와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또한 구성원들이 스스로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정치 참여에도 소극적이다.

‘신민형 정치 문화’는 전근대적 사회에서 근대적 사회로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러한 정치 문화에서는 구성원들이 정치 과정과 그 산물인 정책에 대해 알지만 정치 과정에 자신들의 요구를 투입하려는 태도는 부족하다. 따라서 자신을 스스로 적극적 참여자로 인식하지 않고 정책 집행, 지시 또는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만 간주한다.

‘참여형 정치 문화’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러한 정치 문화에서는 구성원들이 정치 체제의 투입과 산출 과정을 잘 알고 자신들의 역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선거나 그 밖의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하려 한다.

출처 : 정필운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마] 현대 과학 기술은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요나스(H. Jonas)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도덕적 숙고의 간격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이성적 인간(homo sapiens)에 대한 도구적 인간(homo faber)의 지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중략).....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른 학문 영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출처 :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바] 이상적 대화 상황은 자유롭고 평등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더 나은 주장에 근거하여 도달한 합의에 따라서만 규제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대화 상황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표현의 이해 가능성으로, 이해 가능성을 사실적으로 전제해야 한다. 둘째, 표현하는 명제는 참된 명제이어야 한다. 셋째, 제시하는 의견이 규범적 맥락에서 정당해야 한다. 넷째, 말하는 주체가 진실하여야 하며 진지한 발언 태도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대화 상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다른 대화 상대자를 기만하거나 속일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대화 참여자들은 각각 담론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출처 : 정탁준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문제 3] [가]가 [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를 고려하여 [가]의 확대를 위한 정부, 기업, 개인의 역할을 각각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누리 소통망(SNS)이란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누리 소통망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사람들은 누리 소통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정보뿐만 아니라 각자의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인적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정보 추구를 기반으로 한 활동의 결과가 관계의 형성과 유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누리 소통망은 사람들에게 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식과 기능 등을 학습하게 된다. 누리 소통망은 사회화 기관으로서 개인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신형민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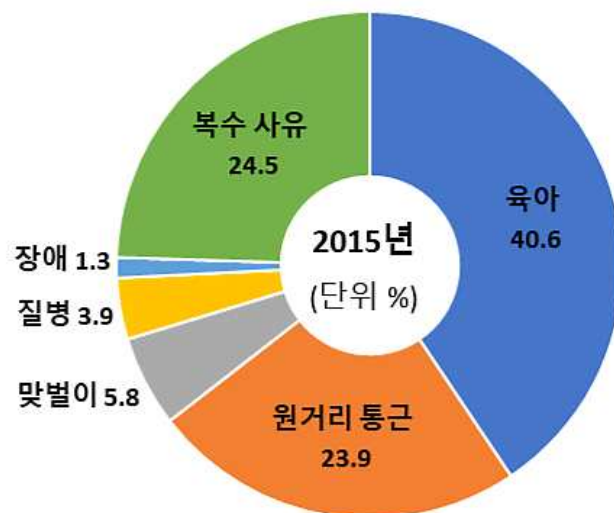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A 씨는 회사로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컴퓨터를 켜 채 근무한다. 어린 두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일을 그만두려던 중, 회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A 씨는 일주일에 한번만 회사에 출근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업무를 받아 집에서 일하고 있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21일부터 학교 밀집도 2/3 이내에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원격 수업의 질을 제고하며,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을 모색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먼저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상호 작용을 지향하는 경북형 원격 수업 ‘Ontact 수업 가이드 방안’을 안내하여 기존 원격 수업의 재개념화, 학급 구성의 다양화 등 경북 지역 특색을 반영한 원격 수업 방안을 정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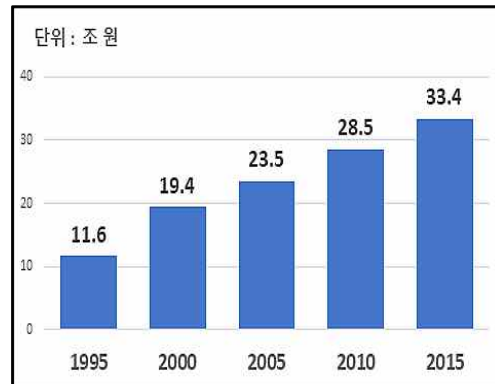
출처 : 『경북일보』, 2020. 9. 21.



<2015년 ○○○ 기관의 재택근무 사유>

출처 : 박병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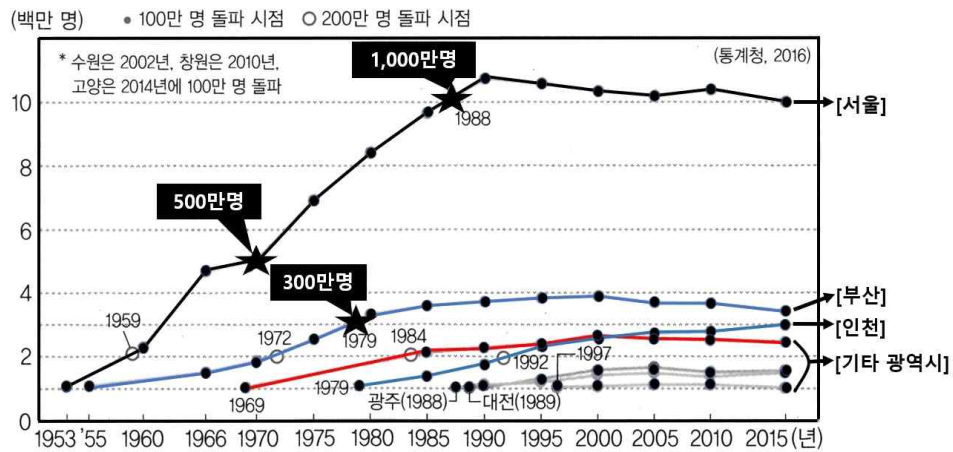
[나]



자료 제공 : 한국교통연구원, 2016.

<교통 혼잡 비용>

출처 : 박병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자료 제공 : 통계청, 2016.

<도시별 인구 변동>

출처 : 유성종 외, 『고등학교 한국지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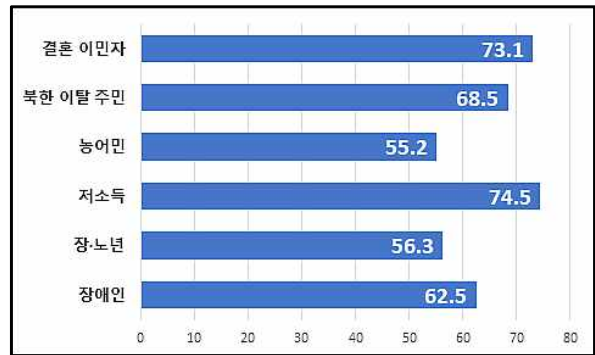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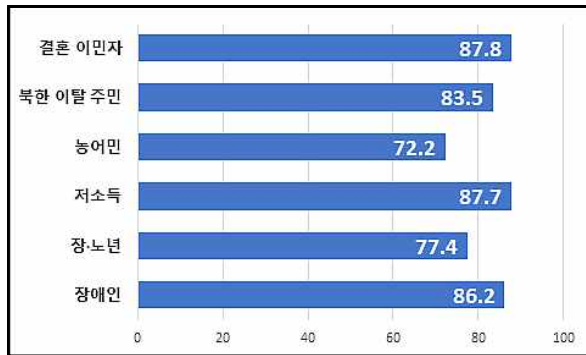
구분	계층별				영역별		
	농어민	장년층	저소득층	장애인	접근*	역량*	활용*
정보 격차 지수	72.2	77.4	87.7	86.2	94.6	70.8	68.0
스마트 격차 지수	55.2	56.3	74.5	62.5	80.8	44.0	60.0

자료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2015 정보 격차 실태 조사.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화 수준 >

- 각 수치는 일반 국민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의 비교 수준임.
- 정보 격차 지수는 PC 기반 유선 인터넷 환경, 스마트 격차 지수는 이동 통신 기반 유무선 융합 스마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의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것임.
- * 접근 :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기가 얼마나 용이한지를 나타내는 지표.
- * 역량 : 문서 작성, 정보 검색 등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 * 활용 :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시간, 이용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

출처 : 육근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 각 수치는 일반 국민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의 비교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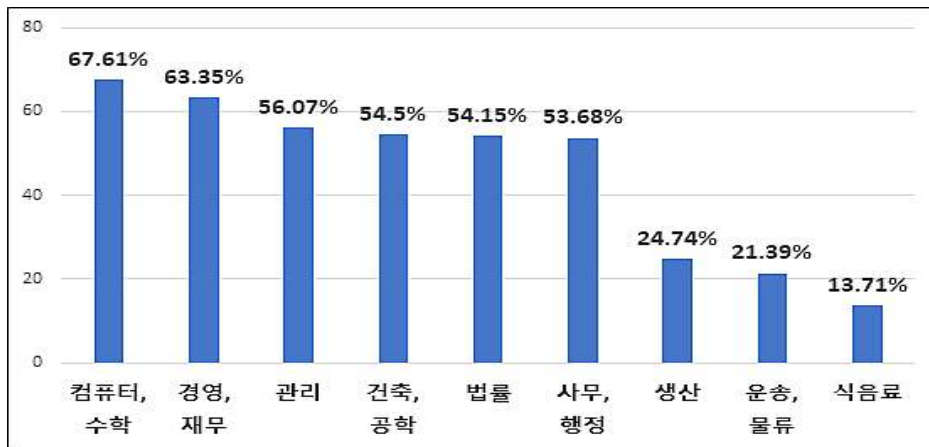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컴퓨터 기반 정보화 수준>

<스마트 정보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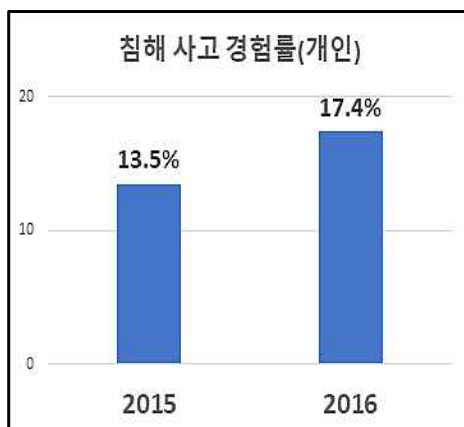
출처 : 손영찬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자료 제공 : IZA, 노동경제연구원, 2020.

<직종별 재택근무 가능 비율>

출처 : 『경향신문』, 2020. 9. 8.



침해 사고 유형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한 피해	11.6%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9.2%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피해	2.8%
피싱/파밍/스미싱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2.1%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 사기 불법 결제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1.8%

* 침해 사고 경험자 기준(복수 응답), 미래창조과학부, 2016.

<개인 정보 침해 경험>

출처 : 김영순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우리 실험실을 이끄는 지도 교수, 이른바 ‘캡틴’은 루마니아 출신이었다. 영어가 외국어인 나와 캡틴 사이에는 웃지 못할 일화가 많았다.

어느 주말이었다. 당시 나는 실험실에서 멀리 떨어진 켄터키주에서 실험실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돕던 학부 연구생한테 자료 손질을 부탁하는 전자 우편을 보냈다. 캡틴도 편지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해 전자 우편을 보냈다. 얼마 뒤 전화벨이 울렸고, 캡틴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네 나라말에는 생큐, 플리즈, 익스큐즈 미도 없나! 한국어로 말해 보게!”

나는 어리둥절해서 시키는 대로 대답했다.

“분명 있구먼.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을 안 쓰나?”

캡틴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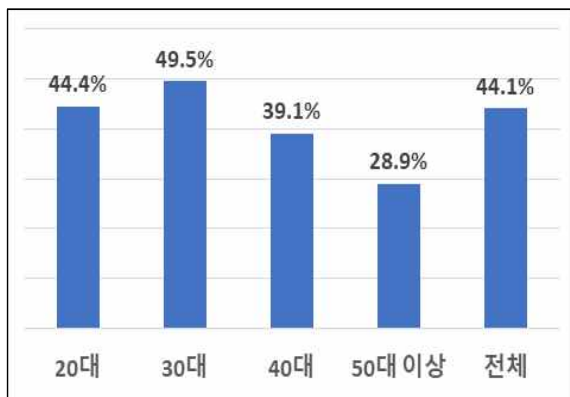
“학부생은 지금 멀리 있지 않나. 게다가 오늘은 주말이고. 상대방의 상황을 잘 모른 채 부탁할 땐 가능한 한 공손해야 한다고. 생큐, 플리즈, 익스큐즈 미! 알겠나?”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보낸 전자 우편을 다시 보니 거기에는 감사의 표현도, 부탁의 표현도 없었다. 뜨끔했다. 캡틴의 호통은 내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을 알려 주었다. 언어로 소통할 때에는, 특히나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는 최대의 언어 예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출처 : 방민호 외,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최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 92명 중 59.8%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안, 걱정,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2%는 스트레스 요소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꼽았다. 이어 온라인 개학 실시(64.6%), 생활의 리듬이 깨짐(64.6%), 외출 자제로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감압함(62.2%)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을 둘러싼 우려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네스코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발달에 필수적인 사회적 접촉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20. 11. 26.



<직장 내 자발적 아웃사이드(아싸) 현황>

출처 : 『아시아경제』, 2020. 5. 24.

구분	응답률 (중복 응답)
업무 끝나면 바로 퇴근하고 개인 시간 갖기	78%
사내 가십에 관심이나 신경 쓰지 않기	34%
커피, 흡연 등 휴식 시간 홀로 즐기기	32%

<대표적인 직장 내 아웃사이드(아싸) 행동>

출처 : 『아시아경제』, 2020. 5. 24.